

당정, 농어업분야 '3500억·추가 증액' 예고

전쟁 위기대응 추경

농식품부 2658억·해수부 919억
유가 급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1면 '이란 종전 의향...'서 계속

혁명수비대 보복의지 단호 구글 등 18개 기업 정조준

이란 가운데 미 군함들의 페르시아만 인근 집결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3번째 항공모함 배치를 개시했다.

WSJ은 니미즈급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함 및 제반 군함들이 버지니아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앞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러드 R. 포드함 항모전단을 중동 지역에 보냈다. 링컨함은 현재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이며 포드함은 화재로 인한 수리를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에 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전 등의 확전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내건 날짜는 4월6일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입장은 단호하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시민을 숨지게 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는 테러 대상을 설계하고 추적하는 미국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적인 경고에도 테러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테러 작전에 연루된 주요 기관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합법적인 타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명수비대는 구글과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거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원부자재 부담 가중... 중기부, 대책 마련 '구슬땀'

소상공인·기업·지자체 등 현장 소통 한성숙 장관 “민생안정 추경예산 확보”

음식점 등에서 많이 쓰는 포장 비닐 값(1000장당)이 일주일 사이 6만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가뜰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울상인데 중동 전쟁으로 원부자재값이 크게 뛰며 설상가상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한성숙 장관은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노동석 제1차관은 여의도 기정원 사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실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대응 TF 3차 회의’를 각각 주재했다.

한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처음에는 수출 기업에 미쳤던 영향들이 이

제 내수 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는 동시에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업계-배달앱-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의 이날 자리에는 소공연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가격 폭등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과 포장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 ‘마진 제로’를 넘어서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포장 용기 가격이 40% 넘게 치솟고 그마저도 사재기로 구하기 힘든 현 상황은 소상공인 혼자만의 힘

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포장재의 생활필수품 지정과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 단속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대상에 포장재 품목 추가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탈 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쿠팡이츠서비스 정우윤 대외정책실장은 “최근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에 친환경 비닐봉지 6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 집값 상승

건정연 “시장 심리 회복되는 양상”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까지 전국이 모두 올랐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전국·수도권·지방·서울 모두 상승했다. 특히 작년 10·15대책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전년 대비 월평균 상승률은 서울이 1.0%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6%, 0.1%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3%다.

임대차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이 0.6%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4%, 0.2%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3% 올랐다.

거래는 전국적으로 다소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월 대비 11월 -12.8%, 12월 -0.3%, 올해 1월 -0.2%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작년 10월에는 전월 대비 62.5% 증가한 이후 11월에는 60% 감소하며 단기 조정을 보였지만 12월과 2026년 1월 각각 10%, 22% 증가하는 등 거래량이 재차 회복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으로

는 거래 위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장 적응 과정을 거치며 거래가 점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작년 12월 소폭 하락 이후 올해 1월 상승 전환하며 전반적인 시장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이라며 “2분기 주택시장은 정책 영향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거래 및 가격은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社告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 추후 통지

③ 내용 :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 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